

전북의 힘으로서의 번역-한글번역과 개화기 접경지역의 탈영토화를 중심으로

배 주 옥
(부산대)

1. 여는 글

한국의 근대화가 발아한 개화기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기존의 봉건사회질서를 타파하고 민족문화를 꽃피우는 역사적 순간으로 정의된다. 구한말 개화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한일합방이 이뤄진 1910년으로 보는 견해와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 및 갑오경장과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1890년 초부터 국권강탈의 해인 191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견해를 따라 1876-1910년을 개화기 시대로 규정하고, 또한 개화기란 “조선의 왕조체제가 붕괴되고 일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중간지점 즉, 제 3의 중간시대 (정정호 134)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중간지점 이라는 개화기의 특별한 상황에 주시하며 민족주의의 발아로 알려진 개화사상의 싹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재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던지 번역학적 입장에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우리말 번역의 상황(condition)을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문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 효시 한글 성서번역에 대한 고찰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신학적 인)1) 관점의 연구는 그리스도의 경전이 한국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사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하고 온전하게 번역되었는지에 중심을 둔다. 국어학적2) 관점의 성서번역 연구는 한글 성경이 우리 어문학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며 한글 성서역사를 고찰한다. 반면, 정신사적인3) 관점에서는 자기 언어로 그리스도의 경전을 옮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성서 번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자기 언어에 대한 인식과 주체의식의 연관성을 살핀다. 즉, 한글 성서 번역에 대한 신학적, 국어학적, 정신사적 고찰은 원천텍스트가 목표텍스트로 번역된 번역의 결과 및 전략을 충실성 대 가독성이라는 이분법적 평가 틀을 적용하며 진행되어왔다. 이와 달리, 본고는 구한말 개화기에 일어난 한글 번역의 “상황”에 주시하며 개화기 민족주의 발아의 기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글 성경 역본들의 비교연구4) 전략을 택하는 대신 개화기의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서 한글 번역과 언문일치의 태동의 의미를 찾아본다. 특별히 효시 한글 성서인 『예수성서전서』(1887)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과 번역자들(조선인들과 서양인 선교사들)의 위치 및 신분적 상황에 주목해본다. 또한, 이들의 만남의 공간이었던 조선 서북 국경문 “고려문”의 중요성을 번역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더 나아가 효시 번역자, 고려문, 개화기 조선의 상황을 “제 3의 중간시점”의 이론과 연계하여 번역이 촉발된 맥락의 속성을 살펴본다. 즉, 낯선 언어/문화의 만남(encounter)과 충돌(collision), 생성(becoming)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제 3의 지대” 혹은 “사이 (in-betweenness)의 공간의

-
- 1) 한글 성서 번역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은 조만준(2002)의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성경번역 연구 및 선교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 2) 한글 성서 번역의 국어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은 전해영(2000)의 「한국어 성서번역과 문화수용의 문제」, 『인문학논총』 2를 참고할 수 있다.
 - 3) 한글 성서 번역의 정신사적인 의의에 대한 고찰은 이성우(2003)의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인간연구』 1을 참고할 수 있다.
 - 4) 효시 한글 성경본과 그 이후 최근까지의 역본들의 비교연구는 정정호(2007)의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번역학 연구』 8:2를 참고할 수 있다.

정체성을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소수화(minoritization), 생성(becoming)의 이론과 유사한 방향으로 탐구해 보며, 궁극적으로, 번역과 개화기 민주주의의 발아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분석한다.

2. 탈영토화, 낯설음으로

본 논고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장에서는 개화기 번역이 받아들여지는 지점, 즉, 조선인들과 서양 선교사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탈영토화의 공간인 “고려문(高麗門)에 주목하고자한다. 로스역(Ross Version)⁵⁾으로 알려진 최초 한글 성서번역본인 『누가복음』(1882)과 『요한복음』, 최초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서전서』(1887)는 평안도 의주 사투리가 섞인 문체를 사용하였고, 한반도가 아닌 중국 땅 심양에서 만들어졌다. 다음은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된 로스본과 현대 한글 어법과 맞춤법에 따라 개정된 개역개정판(2004)의 비교 예이다.

<성서본문: 마가복음 1장 24절 앞부분>

로스역: 나살잇예수야우리너로더부러어드러기네와서우리톨망흐느뇨

개역개정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서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앞부분>

로스역: 어만이는나과무삼상관이요

개역개정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효시 한글 성서본은 서양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⁶⁾와 조선인 서북 청년 이용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과의

5) 로스본은 1900년에 국내에서 성서 번역자회의 『신약전서』가 나올 때까지 약 18년 동안 서간도 한인촌은 물론 조선 전 지역에 보급되었고 “의주 사투리가 섞인 . . . 독특한 구어체의 한글문장은 조선사회에 새로운 언어생활의 일면을 열어 주었고, 한글의 보급에도 지대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유성덕 38).

6)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는 1862년부터 중국선교를 개시하였고, 1872년에는 스코틀

만남으로 시작된다. 로스와 조선인의 낯선 대면, 즉 우리말 번역의 시작은 고려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인과의 접촉이 일체 금지되었다. 이때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위정척사의 시기였고 강화 앞바다에서 미국 군함과 40일간 싸움을 벌인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때 조선은 서양 선교사와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엄명하였다 (유성덕 36; 류순규 82). 그러나, 고려문이라는 공간에서는 청인, 조선인, 또 중국에 이미 들어온 서양인이 그들의 국적, 신분에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역이었다. 물론, 조선인에게 서양인과의 교제가 완전히 허락된 곳은 아니었지만 고려문안에서 그들과의 대면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먼저 고려문의 배경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로 한다. 조선인의 압록강 대안은 184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강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한인촌이 만들어졌다. 이렇듯 압록강 대안에 한인들의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했던 것은 그 곳이 청·조선 양국의 경계에 위치한 중립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문은 책문(柵門)이라고도 불려 졌으며 압록강 하류 국경지방 평안북도 의주 건너편 120리⁸⁾ 정도에 위치하였으며 약 3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한국과 만주 사이의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청과 조선의 국경(문)이었다. 서쪽 국경선인 고려문은 음력 3-6월, 8월(3주간), 9-10월(6주간), 12월에 개방되었는데 이 기간에만 통행이 허락되었다. (이옥희 34)

고려문은 조선인이 청에 들어가는 관문, 즉 국경문(barrier)이었다는 것은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제작에 참여했던 프랑스인 선교사 레지(Jean Baptiste

랜드 선교사 존 매킨타이어와 그 이어 존 로스가 중국 땅을 밟는다. 로스는 조선에서 선교를 시작한 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1886년) 소식과 그의 고려문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1873년에 이어 다시 1874년 10월 9일 고려문 여행에 나선다 (이옥희 9-10; 류순규 81-82). 로스와 더불어 매킨타이어는 우리말 성서번역의 공역자의 한 사람이다. 1878년 로스가 안식년으로 본국에 귀환하고, 매킨타이어가 번역을 계속 추진한다. 즉, 로스역(Ross Version)으로 불리는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1887)는 로스의 단독 번역이 아니라 로스팀역, 즉, 여러 사람들의 “협업 [서양선교사들과 조선인 번역자들]의 결과인 것이다(정정호 141).

7) 고려문의 정확한 위치는 중국 랴오닝성 남부지역의 봉황성(봉성) 투카 지역이다.

8) 48km.

Régis)가 남긴 기록, “레지의 비망록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박기현 140).

유성덕은 고려문이란 조선인이 중국 상인들과 더불어 물건을 교역할 수 있는 특정지구였기에 그곳에서 조선인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36). 1874년 10월 9일 한국어 선생을 찾으러 고려문을 방문한 로스는 압록강을 통해 한약제와 여타의 장사물품을 싣고 고려문으로 장사를 가던 의주 상인 이용찬(9)을 만난다. 류순규는 의주 상인 이용찬을 바로 조선 서북 지역의 정치 문화 종교적 역사를 배경한 인물로 정의한다(82-83). 1875년 다시 고려문을 방문한 로스는 의주청년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를 만나게 되며 그들 또한 이용찬과 마찬가지로 서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로 성서번역에 동참하게 된다. 또한, 1897년 고려문에 홍삼 장사 차 갔다가 병으로 매킨타이어를 만난 서상륜도 로스의 성경번역과 출판사업의 동지가 된다. 후에 이 번역자들은 한글 성서가 번역되자 번역된 성서를 조선 민중에게 전파하는 일까지 지속한다.

고려문은 “낮설음의 공간 즉, 문화 대 문화, 언어 대 언어가 대면하면서 동시에 충돌하는 공간이었으며, 자국과 타국의 경계가 흐려진 탈영토화된 지역이었다. 이 공간에 모인 이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¹⁰⁾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란 이중성을 띤 제 3의 정체성을 뜻하며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외국인이 되는 상황을 포착한 인식의 전환이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의 만남을 통해 이질적인 자아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고려문은 “모국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용되어 발화됨으로써 일종의 외국어로서 탈영토화 되는 곳이 [었다]. 그렇다면 이 탈영토화 된 낮설음의 장에서 차이의 개념이 일어나는 현

9) 이용찬은 압록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 장사물품을 모두 잃어버리고 난처하게 되었고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여서 로스의 조선어 개인교사가 된다. 성서번역에 앞서, 로스는 이용찬의 도움으로 1877년 한국어 교본인 『한영문전입문』(*A Corean-English Primer*)를 만든다(류순규 82).

10) 디아스포라(고대 그리스어: διασπορά)는 특정 민족 집단이 특정한 이유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흩어지게 된 현상 또는 그러한 민족 집단이나 사람을 뜻한다. 이산(離散)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흩어지다”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의 대명사처럼 쓰였으나, 근래에는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으며 특정 민족 집단의 명칭을 붙여 ‘OOO 디아스포라’라는 형식으로 나타낸다(위키백과사전).

상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 문화적 충돌과 언어적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창조의 힘의 역동적인 정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이것을 번역으로 이름 부르려고 한다. 운동구는 번역이라는 사건은 이처럼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낯선 존재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탄생한다고 본다(117). 더 나아가 낯선 존재란 타자뿐만 아니라 자아를 포함하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타자로 인식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자의식을 받아하는 인식의 시공간에서 표출되는데 이것이 번역이다. 번역이란 문화의 충돌을 대표하는 상황인 것이다(Alvarez & Vidal 2).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translation)이란 단어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언급한 것처럼 “용어의 오용 (catachresis)의 한 예다(13). 딱히 이 단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재현(representation)의 틀에 갇혀 이해되는 번역은 이제 이 재현의 틀을 초월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a) A→B

(a)의 원리는 기존의 번역의 정의가 원천 언어 A에서 목표 언어 B로 옮김으로 이해된 이론의 구조이다: “SLT→TLT. 물론, 이 원리에서 원천 언어텍스트는 주체적인 것으로, 목표언어텍스트는 파생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번역이란 종속적인 위치에서 문화적 동화(acculturation)가 일어나는 곳으로 해석되었다.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서구를 중심화한 서구의 계몽주의 운동은 ‘문화’라는 개념을 확장과 발전이라는 ‘서구문명’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문화론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에 작용했던 주도적 원인이기도 하다(리우 50).

그러나, (a)의 구조는 “고려문과 같은 탈영토화 된 지역, 즉, “차이(difference)의 개념을 형성하는 공간에서 문화적 충돌로 발생하는 “초문화(transculturation)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Bassnett 19). 차이에 대한 인정은 기존에 당연시 되었던 완전성과 총체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또한 벤야민의 철학에서 순수 언어(pure language)의 복원이란 번역관에서 차이에 목표를 두는 것과 같다고 보는 맥락이며, 이 때 차이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두 문화의 충돌의 결과로 제 3의 코드(Third Code)가

만들어지는 맥락이다(Shuttleworth & Cowie ed, 172). 그렇다면, 번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와 문화의 충돌, 언어와 언어의 충돌, 전유, 혹은, 수용과 변용 일어나 초문화가 생성되는 역동적인 “중간 공간을 나타내려면 (a)와는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

(b) $A \rightarrow (X) \leftarrow B$

(b)의 원리는 고려문의 정체물 “사이 의 개념과 “제 3차원의 공간 으로 이해하는 논리적 이론이 성립된다. 즉, (X)는 리우(Liu)가 말한 “언어횡단적 실천 (translingual practice)이 이루어지는 공간 아닌 공간으로, A와 B는 동시에 X를 발아하는 “원천 이 된다. 이곳은 “외국어가 자국어로 탈영토화 되는 장면이며, 자국어가 외국어로 탈영토화 되는 상황, 즉 양 방향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생성의 본질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윤동구 110). 따라서, 원천언어/목표언어 혹은 원본/번역본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평가 틀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리우는 A를 객체언어(Guest Language)로, B를 주체언어(Host Language)¹¹⁾로 이름 짓고 이들의 대면과 접촉, 충돌의 이해관계에 주목한다:

“여기서 손님[객체]언어는 주인[주체]언어와 조우하도록 강제되며, 이들 사이의 환원 불가능한 차이 사이에 대결이 이루어지고, 권위가 불리들어 지거나 도전 받으며, 애매성이 해소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한다. 그러다 마침내 주인 [주체]언어 자체에 새로운 단어와 의미가 부상한다. (61)

이곳은 자국이 타국이 되고 타국이 자국이 되는 중이성의 공간이며 혼질성의 공간으로 제 3의 정체성을 수여하는 탈영토화된¹²⁾ 공간이다. 탈영토화의 공간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 코드들의 해체를 반드시 수반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뢰즈와 가타리가 설명하는 “자국어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becoming a foreigner

11) 민정기는 Guest Language/Host Language를 각각 “손님 언어/주인 언어 로 번역했다 (60).

12) “탈영토화는 언제든지 생성과 변이를 억압하고 익숙한 것으로 만드는 ‘재영토화 (reterritorialisation)’ 과정으로 수렴될 수 있다 (윤동구 87-88).

in one's own tongue) 을 가능케 하는 곳이다. 들뢰즈는 자신의 모국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어 2개 국어나 다국어 병용자로 존재하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외국인이란 원천언어로부터 구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사생아 나 “혼혈아 로 비유된다(『천 개의 고원』 191). 고려문에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의 탄생은 바로 들뢰즈의 “사생아 와 “혼혈아 로 뚜렷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탈영토화된 시공간에 위치한 정체성으로 문화의 동화의 산물이 아닌 초문화를 생성하는 힘이다.

탈영토화는 역동적인 시공간으로 “생성, 움직임, 속도, 소용돌이 를 지니는 중간(le milieu)이다. 중간에 대한 정의는 『중첩』(Superpositions)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중간은 절대로 자신의 시대, 즉 자신의 전성기에 있음을, 혹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서 아주 상이한 시간들이 소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며, 차라리 ‘때 아닌 것’(l'intempestif)이다(131). 즉, 다른 시간, 다른 공간과 소통하여 공시대적이며 통시대적인 시각을 얻는 곳이다.

자국인이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공간, 충돌과 혼동의 공간, 변화와 전유의 공간, 이해와 화해가 소용돌이처럼 뒤섞여있는 이 혼질성의 공간인 고려문의 정체성을 우리는 아체베의 “사이 (“in-betweenness)의 개념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상호(inter)의 공간이란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나 언어의 틀이 전복될 수 있는 “변주 능력 을 실천하는 곳으로 “문화의 민족적이면서 반민족주의적인 민 (people)의 역사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다(윤동구 114). 상호의 공간이란 들뢰즈가 말하는 탈영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문화적 횡단(crossing)과 언어적 횡단이 불가피한 공간이며, 역사적,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언어적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곳이다. 이곳은 베누티가 말한 잔여태 (remainder)가 해방되는 곳으로 표준어와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 그리고 주변적인 것들에 열리게 하는 장이다(11). 고려문의 공간에서 조선인, 청인, 서양인 모두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즉 제 3의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혼질성이란 탈영토화된 공간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기존의 방식이 변화를 수용하고 변용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주체성이다. 즉, 생성의 장이다. 이것은 대면하는 주체문화와 객체문화 모두를 원천으로 삼아 아직 도래

하지 않은 신문화를 창조하는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곳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동안 지나치게 무시되어온 장, 즉, 지배와 저항과 전유의 복잡한 과정이 비유럽 언어의 담론적 문맥 내부로부터 또 다른(유럽) 언어적 환경과 관련하여서 관찰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리우 25)

그렇다면 청과 조선인이 교역할 수 있었던 곳, 또 서양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고려문 과 조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으로 이방인 언어와 문화와 접할 수 있었던 “서북지방 그리고, 서양과 일본에 개항을 해야만 했던 “개화기 조선의 정황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c)에서 (b)의 원리를 재조명해본다.

(c) A → (X) ← B

(X)의 속성: 중간, 차이, 사이, 디아스포라

(X): 고려문, 서북지방(국경, 변방), 개화기

“개화기란 조선의 왕조체제가 붕괴되고 일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중간 지점이다. 이 제 3의 중간시대는 소극적인 정체성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대화적인 복합적인 시기[이다]. (정정호 134; 밑줄강조필자)

이질적인 낯설음, 즉 “차이 (difference)에 대면해야만 하던 시대적, 지리적 상황은 언어적 횡단과 문화적 횡단의 역동적인 상황이었고 그 결과 조선은 신문화, 민족주의를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3. 탈영토화, 소수어에서 다수어로

고려문에 대한 번역학적 고찰을 통해 이곳이 탈영토화 된 곳, 즉 차이의 공간이라는 탐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효시 한글 성서번역이 평안도 서북방

언어로 번역되는 맥락을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화(minoritization) 개념에 비추어 관찰해 보고자 한다. 들뢰즈는 소수/다수(minor/major), 소수화/다수화(minority/majority)의 개념을 사용해서 소수적 언어와 다수적 언어를 설명한다. 다수적 언어란 표준화된 (동질적인 구조를 지닌) 언어이며 불변요소와 상수들에 집중된 언어이고 음운론적이고 통사론적이며 의미론적 성격을 지닌 언어이다. 그에 반해 소수적 언어는 지속적인 변이성의 언어이며,

마이네리티[소수파]는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수파로부터 배제된 집단, 아니면 설혹 그 안에 포함되더라도 범을 만들고 다수파를 정하는 판단의 척도에 종속될 뿐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령 여자, 아이, 남부, 제 3세계가 이런 소수파의 예에 해당한다. ... 마이네리티는 ‘생성(devenir)의 역능(puissance)’을 가리키고, 메이저리티는 ‘권력(pouvoir)의 무능(impuissance)’을 가리킨다. (『중첩』 170-71)

들뢰즈가 강조하는 소수적 언어란 다수적 언어를 변형시키고 변이시키는 성분이며,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생성하는 언어이다. 반대로, 다수적 언어는 자신을 표준적 규범으로 삼고 변이로서 발생한 여타의 언어들을 방언이나 비속어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정점에 위치하는 언어의 강력한 위계를 설정하는 권력의 표상이자 재현이며 권력 자체를 말한다(『중첩』 139). 따라서, 다수어와 소수어라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혹은 두 가지 기능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와 소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수어는 언어의 변주 능력이라는 변수를 불변의 상수로 다룸으로써 언어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지배적 권력 의 작동 방법인데 반해, 소수어는 언어의 소수적 사용으로, 언어의 “연속적인 변이 로 새로운 생성을 창안하는 것이다. 소수화란 다수어 속에 소수어를 넣어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Venuti 11). 이것은 되기(becoming)이며 생성이다. 되기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설명은 이러하다.

“되기 개념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되는 변화를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의 내재성을 주목하며,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탈영토화되고 변이하는 삶을 촉발하는 것이다. (『노마

디즘 2』 33)

변화의 내재성은 끊임없는 탈영토화를 촉발하고 변이하는 문화와 언어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부여된 고유한 정체성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탈코드화하는 주체를 창조하는 일을 실현한다.(사공일 99). 들뢰즈와 가타리가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작가들 (『천 개의 고원』 203)로 칭송한 소수와 작가들이란 다수어를 탈영토화하여 자기 자신의 언어 속에 이방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인데 이들의 역할은 소수적 번역을 통해 배가 될 수 있다.

1446년 한글창제와 반포이후 주변의 글로 천대를 받아오며 표류를 거듭해 온 한글이 소수어에서 다수어로 포함되는 사건은 기존의 언문불일치의 체계모니에 반기를 든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일이다. 19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문으로 저술 활동을 했고 한글을 언문으로 폄하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김윤경(1933)는 이렇게 언급한다:

“종래에는 유학에 중독되어 한문이 아니면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문을 모르면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한글을 모름은 태연할 뿐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것을 자궁할 만큼 한글을 천시(하었다). (유성덕 34)

한글은 소수의 언어, 즉 민중을 대상으로 한 언어, 부녀자의 언어, 소외된 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무식한 계층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언어로 취급 받았고, 유교중심의 봉건체제 속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던 글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글이었던 한글로 성서가 번역됨으로 여성을 문맹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조만준 32).

그렇다면, 성경이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됨을 들뢰즈의 소수화 전략에 접목하여 관찰하기 위해 먼저 조선시대 서북지역¹³⁾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서북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정치 문화적 차별 속에 발전된 상업경제를 바

13) 서북지방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황해도와 함경도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서북지방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류순규(2004). 『서북지방 개신교 수용에 나타난 사회적 토대와 역사성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탕으로 상업자본에 의한 부를 축적한 지역이[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끊임없는 수탈은 있었지만 사족층(士族層)이 형성되지 못해 조선의 신분제적 사회질서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웠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인정적인 유대감이 강하게 지역공동체를 결성하므로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정치 경제 지리 환경적 요인을 강인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서북인은 상업적 세계관이 갖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강인하고 개방적이며, 심성 고운 사람들의 공동체적 경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보통교육적(普通教育的) 서당교육의 여파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용이 준비되었고,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을 갖춘 저항 지식인들이 형성되었다. (류순규 80; 밑줄강조필자)

조선 왕조의 건국과정에 태조 이성계는 그 자신이 함경도 출신이었고 서북 지역 무인들의 힘에 의존했지만 조선시대 내내 서북지방 출신의 관리등용에 차별을 가하였다. 조선중기 이후 문과와 무과를 합하여 서북출신은 근원적으로 고급관리가 되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서북 출신에 대한 이런 “차별은 구조적인 차별과 소외였고, 이윽고 19세기에 이르러 차별받는 서북인들은 저항지식층이나 장사층이 된다. 서북지방은 국경과 변방이라는 제약 때문에 상인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국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청과의 무역을 통하여 상업이 발달하였다. 대외무역의 시작은 18세기에 오면 관무역외에 사무역의 발달로 이어져 육진의 주민과 지역상인은 점차 중국 상품을 구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켜 큰 이익을 얻고 19세기에는 해로가 발달하여 함경도의 물화집산지에는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부상대고인 객주층이 성장할 수 있었다(류순규 73-77).

한편 발전된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제적 번영과 풍요는 세도정권의 주요한 수탈대상이었고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¹⁴⁾ 또한, 이 지역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향촌적용이 약하였고 향촌사회에서 유교이념을 확산시키던 서원도 미미하여 유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미약하였다.¹⁵⁾ 그리고, 서북지방은 상공업과 광산

14) “평안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나 평안감사는 나는 세도 떨어뜨릴 수 있다 라는 말은 평안감사의 절대적 위상이나 착취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ibid. 77).

15) 서북지역의 서원은 전국에 존재하는 서원 숫자의 각각 7%, 10%에 불과하였다. 이와 관하여 정진영(1990)의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

업, 상업적 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평민과 천민이 많았다. 비교적 문맹이 적었던 지역이었기에, 북쪽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한문을 배웠고 알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남쪽 사람들은 한문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한문자보다 더 읽기 쉬운 한글로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류순규 79-80).

즉, 서북지역은 상업을 토대로 한 발전된 경제를 지녔지만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조선의 지배문화의 관점에서는 “주변부였다. 류순규는 이 지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서북지역은) 결과적으로 문물과 정보의 교역지역인 국경지대의 특성 속에서 사회변화를 담당할 자립적인 계층이 형성되었고, . . .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사회 문화적인 주변부로 . . .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조건을 갖추었다. (81)

바로 이 지역의 방언으로 성서가 번역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무역을 통한 타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언어와 문화의 탈영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서북지방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이들의 언어는 소수적 언어로서 지속적인 변이가 오히려 가능한 자유로운 언어였다. 한글성서번역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에는 음역으로 “밥팀레 와 “사밧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밥팀레(세레)¹⁶⁾ 와 “사밧일(안식일) 은 음역이지만 “밥팀+레 와 “사밧+일 이라는 조어를 시도하여 만든 신조어였다. 이외에도 “외아달(독생자) “성령(성령) “성던(성전) “복음(복음) “길이살물(영생) “아멘(아멘) 등이 있다(전혜영 12-13).

조선인 번역가들은 우리말 성서번역에 있어서 부수적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하였다. 박순규는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가 로스를 만나기 전 백홍준의 아버지로부터 소책자를 받아 복음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었다고 언급한다(83). 성경번역에 직접 관여한 한국인 성경번역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성경 번역 사업에 있어서 한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개화기의 문화와 그 이후의 변화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

실』 3: 102-119를 참고 할 수 있다.

16) 가로표기안의 단어들은 현대어임.

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로스는 한국인 번역자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번역작업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로스는 성서 번역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글 성서의 번역은 나의 성경반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이 나와 함께 한문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 원문과 대조하여 . . . 진행시켰다. (이옥희 36)

서양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자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도 번역 내용을 직접 쓸 수 없는 대신, 다만 본토인 번역자들을 지도하고 수정하고 개선시키는 일에 몰두하였다(39). 실제적으로 효시 우리말 성서 번역은 김아영이 부르는 것처럼 “로스팀역 인 것이다.¹⁷⁾ 즉, 효시 한글 성서본인『예수성서전서』(1887)은 로스본이라기 보다 “로스팀역 이라고 불려야 더 타당하고 나아가 이응찬·로스역 혹은 로스·이응찬역으로 불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말 성서번역과 뒤따른 ‘한글전용’의 움직임은 소수화의 번역인 것이다. 다수언어와 소수언어를 갈라놓았던 울타리(fence)가 무너진 것이다. 다수언어의 틀이 전복된 이유는 소수언어인 한글이 다수언어인 한문(문자언어)의 영역에 들어옴으로 가능해졌다.

4. 탈영토화, 재현에서 생성으로

번역은 재현의 논리에 기초하지 않은 차이의 생성이다. 들뢰즈는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는데 그가 비판하는 이유는 재현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우위의 관행이 되어 차이의 기능을 줄이고, 주변화 시키고, 심지어 차이를 부인해 버린다는 이유에서이다(『중첩』 160-61). 이에

17) 문서 사업이 거의 선교사들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의 폭이 제한되었거나 조력자로 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당시 서구/문명, 동양/야만이라는 이분법적인 의식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었다. 이런 의식은 서구유학파와 일본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지식인들에 의해 한국사회에 빠르게 흡수된다.

반하여 소수적인 것은 연속적인 변이로서 생성과 변이, 즉 차이를 만들어 내는 변이의 능력으로 재현의 틀을 벗어 날 수 있게 한다. 소수적인 번역이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나 독자에 대한 가독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화 번역은 원문의 언어가 수용 문화의 언어로 변이되어 가는 과정, 즉 새로운 언어의 생성을 표현하는 번역(이며) 동시에 표준어라는 수용 문화의 다수어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수어로서 변주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번역이다.

소수성이 가치 있는 생성의 씨앗, 생성의 결정체가 되는 것은 중간이나 다수성의 통계 불가능한 운동과 탈영토화를 열어 놓을 때뿐이다. . . 본질적인 것은 언어 A나 언어 B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언어 B가 되어가고 있는 언어 A에 다름 아닌 언어 X에 있다. . . 수많은 소수적 요소를 이용하고 연결 접속시키고 결합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돌발적인 특수한 생성을 발명하게 된다. (『천 개의 고원』 205)

따라서, 한글 성서번역, 특별히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된 효시 성서번역은 언문불일치의 권력의 무능을 생성의 역능으로 변화시킨 소수화 번역인 것이다. 그 당시 한글은 “떠다니는 언어, 유목민 같은 언어, 문법이 없는 언어, 흠친 어휘로 비유될 수 있다(『카프카』 65).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번역을 하나의 “간주곡(intermezzo)로 비유한다. 간주곡이란 항상 가운데에서만 위치하며, “그리고, . . . 그리고 . . . 그리고 의 논리로서 중단 없이 이어진다(『천 개의 고원』 54). 외국어와 자국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역이라는 실천은 원문이나 수용 문화를 모방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이들을 함께 탈영토화시키는 것이다. 번역이란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종속적인 작업이 아니라, 무한한 복수적 실천들이 생성한 차이들을 지속해서 끝없이 긍정하는 자주적 “반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간주곡이 변주해내는 생성의 즐거움이 모든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재현의 권력을 탈피하듯 번역이란 재현의 틀을 탈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 활동에 기반한 번역은 비판되어 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주체 혹은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초월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과의 유사성의 여부에 따라 좋고 나쁜 번역의 위계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번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번역이 원문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기

편안한 가독성을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 대신, 번역이 무엇을 생성해내는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윤동구 81-83). 소수화 되기가 들뢰즈의 생성의 역능으로 비유되는 “여자-되기 (becoming-woman)의 전략 이라면(『중첩』 164), 소수화 번역이란 역동적인 제3의 정체성의 생성인 “아이-되기 (becoming-child)의 전략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이-되기란 생성의 역능으로 전복적인 힘을 발휘하여 기존의 재현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실천을 말한다. 아이-되기로의 소수화번역은 끝없는 생성이며 과정이며 변이를 이끌어 내는 주역으로 객체언어와 주체언어가 동시에 모체가 되어 발아한 제 3의 정체성을 유발한다. 서북지역 방언은 소수적 언어였으며 더 나아가 조선의 한글 또한 소수적 언어였으므로 바로 “생성의 역능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이-되기란 불변적이고 연속적인 의미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움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벤야민의 “성장(Nachreife)과 “산고 혹은 고통(Wehen)으로 표현된 비유와 같다.¹⁸⁾ 따라서, “아이-되기로 비유된 한글성서번역은 과거나 전통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화하여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는 사유인 것이다. 언어와 문화적 횡단 속에서 한글 성서번역은 개화기 문화를 새롭게 구성하는 획기적인 실천이었던 것이다. 우리말 번역으로 태어난 신어휘, 신문체, 신조어들이 조선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보자. 김현주에 의하면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마귀, 지옥, 회개, 천국 등과 같은 기독교적 수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19). 또한, “민족, “국가 같은 표상들이 다수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장로, 예수, 갯세마네 . . . 등등 우리말 성서의 어휘들이 사용됨이 포착되고, “구원자의 모티브가 개화기 소설에 부각됨도 알 수 있다(82-89). 이처럼, 개화기는 구획화된 사고에 대한 저항과 학문적, 문화적 개방성을 자아내는 생성의 장이었다.

언문으로 순 한글이 사용되는 실천은 『독립신문』과 신소설로 그 지평을 넓

18) “Nachreife는 실제로 수확 후 과일이 숙성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수확된 포도가 썩어감으로써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Wehen는 단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산고(birth pang)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원본의 죽음을 전제한다(신승환 61).

혀간 것이다. 윤동구는 19세기 독일의 번역¹⁹⁾은 자신들의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문화적 자산들을 섭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104). 유성덕은 루테르가 성서를 독일국민이 쓰는 일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뒤에 독일근대문학에 기여한 것과 같이 개화기 한글번역의 성서가 신문학을 위한 문화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임을 주목하며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의 작품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즉, 이들의 시작품 중에서 1910년 전에 출판된 시들은 성경에 영향 받은 어휘와 주제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신약성경번역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45-46). 김병철 또한 로스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글 성서가 개화기 이후의 소설 문학 내지 언문일치의 문장의 산모였다. . . 한글 성서의 효시가 되는 로스역이야말로 한글의 발전과 언문일치의 신문체에 기여한 점은 다대하다 (27).²⁰⁾

종교와 민족주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조선의 경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으로 인해 개화기 민족주의적 성향이 우리말 성서번역과 연계하여 발아된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조선사회에 뿌리 내렸던 유불선 경전과 서적들 중 한글로 번역된 것이 극히 일부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문으로 저술 활동을 했고 한글을 언문으로 폄하했다. 즉, 그들은 중국과 조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말엽까지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아직 중국과 분리된 주체 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이성우 52). 그러나, 개화기에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화해가 조선에 있었다고 김현주는 지적 한다: “부국강병, 진보, 문명진화의 사람이 되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이 조선인들에게서 싹 트고 그것은 청으로의 분리를 반증하는 것이다 (21). 청과 분리된 새로운 주

19)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번역의 전략을 외국화 번역과 자국화 번역으로 나눈다. 외국화 번역이란 “독자를 원작자에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이며 자국화 번역이란 “원작자를 독자에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이다. 윤동구는 외국화 번역이나 자국화 번역 역시 재현/표상의 논리 속으로 깊숙이 침체 되는 것으로 지적한다(108).

20) 그러나, 이수정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로스역에 심한 북방 사투리가 많아서 부적당하다고 여겼고, 이윽고 성서번역자회 공동번역이 1904년 그리고 수정판이 1906년에 나오게 된다(유성덕 39).

체 의식을 가지려는 잠재적인 힘은 역동적이고 자율적이었던 서북인들의 번역 활동을 통해 현실화되고, 새로운 주체의식이란 번역이라는 실천통로를 통과한 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한문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사건은 중국(청)과 분리되어 자유와 자율을 주장하는 새로운 주체적인 의식, 민족주의의 발아인 것이다. 이것은, 신문학 전광용의 소설 『자유종』(1910)²¹⁾에서 신철현의 입을 빌어 “국가, “민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성경형전을 . . . 국문으로 번역하여 라는 것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뚜렷하게 인지 될 수 있다.

한글번역으로 생성된 민족주의의 발아는 개화기 효시 한글신문인 서재필의 “독립신문 (1896)과 주시경의 “국어문법 (1898), 그리고 장지녕의 “시일다방성 대곡 (1905년의 강압적 을사늑약을 원통해 하는 글)으로 이어져 갔다. 또 다른 예로, 이성우는 장지녕의 글에서 “동포, “국민정신 이라는 말이 사용됨을 지적 한다(52).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신문이 해야 할 일을 제시 한다: “민족적 영웅을 추앙하는 풍조를 조성하는 사업에 신문이 앞장서야 한다.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길러주자 (정진석 78).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던 『독립신문』이 한글로 씌여진 사건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다.

성경번역을 정신사적인 관점으로 고찰한 이성우는 “우리말 번역은 성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인 자의식의 문제로 풀이한다(51). 그는 “주체적인 자의식이 태동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특히 종교의 경전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일 이라고 말한 이기상의 말에 주목한다. 번역과 주체적 자의식의 밀접한 연관을 주시한 이성우의 연구는 주체적인 자의식이 번역의 행위를 낳는다는 견해다. 다른 말로, 주체적인 자의식의 행동으로 번역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주체적인 자의식이란 타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됨을 주목한다. “낯설음 이라는 타자를 만나기 전에 자의식이란 태동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낯설지 않던 것이 낯설게 되는 것, 즉, 자국에서 외국인 되기란 자아가 타자가 되고, 타자가 자아가 되는 시공간, 즉 번역이라는 (X)의 공간에서 생성되는 사건이다. 주체적인 자의식이란 바로 이 (X)의 공간에서 형성된다.

21) 1910년 7월 30일 광학서표에서 발간됨.

그렇다면, 번역의 공간에서 주체적인 자의식이 잉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주체적인 자의식의 성장과 생명력은 끊임없이 변화와 생성을 유발하는 번역의 장에서 보존된다. 새로운 주체적인 자의식은 반드시 번역이라는 역동적이고 전복적인 실천의 공간으로 들어갈 때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다. 낯설음을 대면하는 탈영토화 된 공간은 바로 자아가 타자가 되고 타자가 자아가 되는 곳으로 창조적 역능이 실천되는 곳이다.

본 연구자는 번역이란 낯설음과의 “만남 부터 시작됨을 앞 장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개화기 주체적 자의식으로 묘사되는 “민족주의란 번역이라는 탈영토화된 시공간에서 낯설음과의 대면에서 발아되어 출생된 소산(offspring)이다. 여기서 낯설음이란 타자를 통해 보게 된 자아의 낯설음을 포함한다. 번역이란 하나의 절대적인 문화와 권위를 정점으로 유지되던 정신적, 사회적 구조와 공간 밖으로 나오는 탈영토적 실천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번역은 새 언어와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아니던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주체의식은 바로 번역이라는 터널(tunnel) 혹은 수로(conduit)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생겨난다. 따라서 번역은 폐쇄된 문을 여는 “사이 즉, 통로이며 연결접속인 것이다. 들뢰즈는 연결접속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다양,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연결접속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연결접속을 증가시키는 것만을 간직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긍정한다는 것은 단언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고, 토대를 부수고, 다른 가능성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풀어놓으며 어리석음이나 진부함[클리셰]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169).

따라서, 생성으로의 번역이란 연결접속을 증가시키는 것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하고 생성의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자기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은 탈영토화의 공간에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이루어진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몰락하는 청의 운명과 문명의 서양을 목격한 조선은 그들의 새로운 주체성이란 현 체제와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자생으로 형성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개화기를 시작으로 조선의 의식은 청의 전통적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더 깊이 요동친다. 신채호가 단군을 시조로 한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쓴 이유도 중국에서 분리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정진석 86).

우리는 번역과 번역가의 주체란 한 문화/언어에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두 문화/언어의 소산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찰했다. 번역과 번역가란 바로 탈영토화와 디아스포라, 소수화, 생성으로 이해되는 제3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X)의 공간이며, 이들이 바로 (X)인 것이다.

개화기 민족주의는 문화와 문화의 만남의 소용돌이 속에 발아된 신문화로 번역의 전복적인 힘의 소산이다. 이 제3의 공간은 번역의 공간으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장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변이가 일어나는 능동적인 지대이다. 이곳은 낮은 만남, 충돌, 결합, 그리고 생성의 역동적인 공간이었으며, 전복적인 힘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신문화를 발아, 태동, 출생시킨 곳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개화기는 존 로스(John Ross)가 류요한²²⁾이 되고, 서재필이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 되는 상황이었다. 즉,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란 하나의 실체에 사실상 이중성의 주체성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중성은 또한 ‘단일’(simple)이라는 (제 3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서재필은 비판받기도(정진석 87) 하였지만 ‘서재필은 왜 자신을 미국인 제이슨으로 불렀을까’라고 반문해본다. 먼저 그의 영어이름을 보자. 제이슨이란 영어로 Jason으로 표기된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Jaisohn, 마치 “Jai 는 서재필의 “재 를 “soh 는 서재필의 성 “서 를 암시하는 듯하다. Jason이라는 서양이름에 한국의 이름이 섞여 놓인 듯하다. 영어의 이름 속에 외국어를 창조한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을 옛 조선인이 아닌, 서양과 조선이 섞여 있는 제 3의 주체성으로 보았다. 타자 속에 자아를 그리고 자아 속에 타자를 대면시켜서 만들어 낸 능동적인 실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국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가 아닐 수 있고, ‘이국적이다’ 라는 것도 반드시 타국적인 것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화기 민족주의의 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이다. 한글성서번역으로 생성된 신조어들은 바로 번역의 생성이란 자국적인 것에 타국적인 것을 포함시키는 힘, 즉, 재현의 틀을 넘어서는 역능임

22) 류요한은 존 로스(John Ross)의 한국어 이름이다.

을 증명한다.

5. 맺는 글

본 연구는 개화기를 조선의 왕조체제가 붕괴되고 일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중간지점 즉, 제 3의 중간시대로 이해하고 이 “중간지점 이라는 개화기의 특별한 상황에 주시하며, 구한말 민족주의의 발아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재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지 번역학적 입장에서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개화기란 탈영토화와 소수화, 생성의 정황이었음을 포착했다. 이곳은 A→B로의 수동적 수용이 아닌 충돌과 전유(appropriation)가 일어난 생성의 역능의 장이었다. 스피박이 “멈추지 않는 직조기의 북 (incessant shuttle)으로 비유한 번역의 장이 개화기 서북지방의 상황으로 이해 될 수 있었다(13). 조선인과 서양 선교사가 만나 효시 한글(성서) 번역을 태동하는 고려문이 바로 개화의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공간이 되었고, 조선의 변두리 위치에서 소외되었던 서북지방과 그곳의 방언이 새로운 변이와 생성을 자아내는 개화의 역동적인 공간과 물질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의지에 불문하고 서양의 문화와 일본을 대면해야 했던 조선의 언어문화는 개화의 시공간이 되어 한글이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되고 “민족주의 라는 신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되었다.

개화의 생성적 힘, 즉 전복적인 힘은 번역의 힘이며, 개화란 번역이 생동하여 자국어와 문화가 탈영토화되는 실천이다. 전통과 재현의 틀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고를 받아하는 원동력이 번역인 것이다. 개화기 민족주의의 발아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대면한 구한말 조선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능동적으로 “변용 하여 생성된 초문화(transculturation), 즉 제 3의 문화였던 것이다. 은유적으로, 고려문은 번역의 시공간을 대표한다. 이것은 문화적 동화(acculturation)의 현상이 아니었으며, 한반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개화기 민족주의의 발아는 청과의 분리를 갈망하게 된 조선이 번역을 통하여 만들어낸 신문화였다. 즉,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이 충돌하며 혼합되어 생성된 제 3의 정체성이었다. 개화기 신문화로 이해 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태동

의 요인이 번역의 전복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은 또한, 번역이란 지속적인 변이(이것이 필히 진화나 발전을 의미함은 아니다)를 생성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행해지는 것이며 또, 불가피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재인 옮김. 2001. 『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 nie II*.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김현주. 2003. 『개화기 소설의 기독교 수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순규. 2004. 『서북지방 개신교 수용에 나타난 사회적 토대와 역사성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정기 옮김. 2005. 『언어횡단적실천: 문학, 민족문화, 그리고 번역된 근대성-중국, 1900-1937』. 서울: 소명출판사(Lydia Liu. 1995. *Translation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dford: Standford UP.)
- 사공일. 2006. 「들뢰즈의 ‘소수적’ 의미 연구」. 『번역학 연구』7: 2, 87-104.
- 신승환. 2003.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역사인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덕. 1985. 「한글성경이 우리 어문학에 끼친 영향」. 『충신대 논문집』 5, 33-52.
- 윤동구. 2003. 『비재현적 번역 이론의 가능성-들뢰즈(G. Deleuze)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우. 2003.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인간 연구』 1, 33-60.

- 이승민. 1987. 『서북지방 초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신앙과 민족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 2004. 『초기 한국개신교 형성에 미친 권서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 이진경 옮김. 2001.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1975. *Kafka: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Paris: Minuit).
- 전혜영. 2000. 「한국어 성서번역과 문화수용의 문제」. 『인문학논총』 2, 1-16.
- 정진석. 1996. 「서재필의 글에 나타난 실용적 사상」. 『현상과 인식』, 67-88.
- 정진영. 1990.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102-119.
- 조만준. 2002.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성경번역 연구 및 선교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 2007.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번역학 연구』 8:2, 133-162.
- 허희정 옮김. 2005. 『중첩』. 서울: 동문선(Gilles Deleuze & Carmelo Bene. 1979. *Superpositions*. Paris: Minuit).
- Alvarez, Roman and M. Carmen-Africa Vidal, ed. 1996.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Shuttleworth M. and Moira Cowie, ed.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
- Spivak, Gayatri. 2000. "Translation as Culture." *Parallax* vol.6.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Abstract]

**A Subversive Power of Translation: Focusing on the Korean
Translation Practice and Deterritorialization of the Northwestern
Border during *Gaehwagi***

Bae, M. Jo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rth of nationalism during Gaehwagi(1876-1910) and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of Korean rendering of the Bible during the time. Taking a translational perspective on the subject, it observes the cross cultural and lingual practices of the time with respect to the concepts of “deterritorialization, “minoritization and “becoming presented by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The Gaehwagi Bible translators'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positions are investigated as “diasporas to uncover the attributes of translation which will inevitably give an answer to the birth of nationalism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A Korea Gateway, “Korea-mun (고려문), is observed as a deterritorialized space where the cross cultural and lingual practices had taken inevitably yet ideologically in Gaehwagi. The geographical, political,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Chosun are also focused to explore the attributes of nationalism which was born in that period. Moreover, the special identity of Gaehwagi translators is observed as “diasporas," as people who became foreigners in their own tongue/culture. Their unique identity is, then, introduced as an “in-betweenness" which is understood as Venuti's “the irreducible heterogeneity of linguistic and cultural situation."

Thus, the Gahwagi situation is understood as the right milieu for the birth of new culture, nationalism, which is created and nurtured by the subversive power of translation.

▶ Key Words: Gaehwagi, translation, deterritorization, minoritization, becoming,

배주옥

부산대학교

marybae@pusan.ac.kr

관심분야: 번역학, 성서번역(사), 시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